선명상, 재즈와 '마음 치유' 무대 펼친다

7월 7일, 서울 마포아트센터
'치유를 위한 선명상 음악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치유를 위한 선명상 음악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혜광사 선명상연구소장 덕안 스님, 국민평안선명상중앙본부장 일감 스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아쟁 연주가 신현식(왼쪽부터).

서울 혜광사(주지 덕현 스님)와 국민평안선명상중앙본부(본부장 일감 스님)가 선명상과 재즈를 접목한 치유 공연을 선보인다.

7월 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열리는 '나를 찾아가는 길 – 치유를 위한 선명상 음악회'는 선명상과 현대 예술치유를 결합한 융복합 공연이다.

이번 음악회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조계종이 주창해 온 '하루 5분 선명상'의 가치를 문화예술로 확장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음악과 침묵, 호흡이 교차하며 이어지는 100분간의 공연은 '듣는 공연'을 넘어 '함께 수행하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의 총연출과 음악감독은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맡는다. 웅산은 한국대중음악상 재즈 부문 수상을 비롯해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의 '블루노트'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며 한국 재즈를 대표해 온 아티스트다. 현재 한국재즈협회장과 서울재즈페스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재즈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무대에는 웅산을 비롯해 신현식(아쟁), 이아람(대금), 이봉근(판소리), 강선일(타악기), 이정식(색소폰), 김규식(첼로), 백경우(무용) 등 재즈와 국악, 전통예술 분야의 정상급 예술가들이 함께한다. 웅산밴드의 강재훈(피아노), 최우준(기타), 황호규(콘트라베이스), 신동진(드럼)도 참여해 장르를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감상형 음악회를 넘어 총 13곡, 100분간의 공연이 하나의 선명상 수행 여정이 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관객을 능동적 참여자이자 수행자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재즈와 국악 공연의 조화 속에서 호흡 명상 가이드와 감정 치유 세션이 함께 진행된다. 영상과 조명을 결합한 연출을 통해 관객들이 공연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도하며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도록 구성했다.

혜광사와 국민평안선명상중앙본부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선명상과 예술치유를 결합한 공공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과 문화공간에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치유예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민평안선명상중앙본부장 일감 스님은 6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명상은 한국불교 고유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복잡한 종교적 형식 없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이라며 "하루 5분 선명상 운동을 통해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온 온 경험을 통해 이번 공연은 그 가치를 문화예술로 확장한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리에 함께한 웅산 감독도 "예술과 명상이 만나는 이번 음악회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선명상이 일상 속 치유문화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행사로 서울시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선명상 음악회 공식 인스타그램(@seon_concert)에서 확인 가능하다. 010-8067-2371

태고종 "미혼모 가족에게 쉼과 희망을"

6월 20일, 양주 청련사·두리랜드
'따뜻한 마음과 사랑 나누는 동행'



태고종은 6월 20일 양주 청련사와 두리랜드 일원에서 미혼모 가족 프로그램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동행'을 개최했다. 사진은 '희망꾸러미 키트' 전달 모습.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미혼모 가족들에게 쉼과 위로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6월 20일 양주 청련사와 두리랜드 일원에서 미혼모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동행'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소속 가족 130명이 참석해 명상과 사찰 체험, 놀이문화 체험 등을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자녀 간 유대감 회복,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마음을 돌보고 가족이 함께 역동적인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뒀다.

양주 청련사에 모인 참가자들은 먼저 경내를 둘러보며 자연 속에서 명상을 체험했다. 사찰음식 공양과 차담을 통해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두리랜드로 이동해 다양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자녀와 교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태고종 측은 응급상황에 대비, 인근 병원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대기 동선을 확인하는 등 야외활동에 만전을 기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과 응원의 시간을 이어갔다.

태고종 총무원은 이날 각 가정에 5만원 상당의 '희망꾸러미 키트'도 전달했다. 꾸러미에는 간편식과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이 담겼다.

태고종은 사업을 통해 미혼모 가정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고, 가족 간 자연스러운 교류로 상호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사업을 미혼모 가정의 정서 회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 측은 "미혼모 가정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심리적 고립감과 사회적 편견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문화체험이 가족들에게 쉼과 희망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동행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고종 총무원이 주관하고 청련사와 한국불교태고종복지재단, 한국미래복지재단, 해병대전우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이 후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2027 QS 평가 520위…'98위 UP'

교육 · 연구 등 5개 지표 약진
종교학 세계 51~100위권 등

영국 글로벌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세계 대학평가에서 동국대 순위가 98계단 수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QS가 6월 18일 발표한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전년대비 98위 수직 상승한 세계 520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국대는 202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순위 상승세를 이어갔다.

QS 세계대학평가는 학계 평판도, 산업계 평판도, 교수당 학생 비율, 교수당 피인용 수, 외국인 교수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국제 공동 네트워크, 취업 성과, 지속 가능성 등 9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동국대는 총 5개 평가 영역에서 약진하여 종합 순위의 상승을 견인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평판도가 154위에 올랐으며, 교수당 피인용 수 영역에서 126위 상승했다. 이 외에 외국인 학생 비율(62위 상승), 외국인 교수 비율(31위 상승), 지속가능성(19위 상승) 등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연구 인프라 개선 등 교수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외국인 학생 유치 정책을 활성화하여 연구와 국제화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앞서 동국대는 지난 3월 발표된 '2026 세계대학평가 전공 분야별 순위'에서 종교학 분야가 세계 51~100위권에 올라 불교 종립대학으로 교육과 연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외에도, 언어학이 세계 201~250위권, 약학의 경우 세계 351~400위권에 오르는 등 여러 분야에서 고루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신중일 기자

"청년 장병 마음 주파수 맞춰야"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제34회 호국불교포럼'



예비역 불자 장병들이 청년 군포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만소 스님은 '고립증후군'을 겪는 해군들을 위한 '맞춤형 음원 제작'과 '마음 치유 코칭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이영주)는 6월 24일 서울 원광사에서 '제34회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청년 장병의 마음 주파수를 맞추다'를 발표한 만소 스님(해군 재경대대 소령)은 출가 전 래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군포교 방안을 발표했다. 만소 스님은 "해군 장병들은 휴대전화 신호마저 끊긴 망망대해 위에서 소통의 단절과 극심한 불안감이 엄습하는 '고립증후군'을 경험한다"며 "이때 '오디오 명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장병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우 육군부사관학교 소령은 '호국불교 가치 재정립 및 군 생활 적용 방안' 발표에서 "과거 군법당과 대면 법회 중심의 포교 방식에서 짧은 영상과 명상 콘텐츠, 온라인 법문 등 디지털 포교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교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고문은 '호국불교의 역사와 현대적 계승 방안' 기조 발제에서 장병들의 마음 관리법으로 '명상·과학을 통한 마음근력 강화 방법'을 제안하고 "장병을 위한 현장 맞춤형 명상 방안을 부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운 기자

라오스 동자승 279명에 희망 전했다

로터스월드 · 아름다운동행 사업
식료품·학용품 등 지원 환경 개선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5월 28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왓파오(Wat Phao) 사찰에서 취약계층 아동 교육지원 및 동자스님 수행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의 NGO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번 지원을 통해 사찰에서 생활하는 동자 스님 279명에게 쌀 3125kg을 비롯해 라면 80박스, 세제 30박스, 비누 30박스, 공책 200팩, 연필 200세트, 개정 교과서 470권, 교사용 지도서 71권 등이 전달됐다. 식료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학습에 필요한 교육물품까지 함께 지원해 수행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루앙프라방의 왓파오 사찰은 라오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찰 가운데 하나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7학년에 해당하는 동자 스님 279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수행과 함께 사찰 내 학교에서 라오스 정규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다.

한때 500명이 넘는 동자 스님이 수행했던 왓파오 사찰은 식량과 교육물품 부족, 교육시설 노후화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약 279명만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원으로 사찰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동자 스님들에게 공양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로터스월드는 이번 지원에 이어 오는 9월 식료품과 학용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2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25-4277 후원계좌: 농협 301-0058-7941-81

임은호 기자


"아리셀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참사 2주기 추모제'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추모기도를 진행했다. 사노위는 참사 이후 분향소 설치 기도, 진상규명 기도 활동, 희생자 가족 지원, 49재, 1주기 추모제 등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현희 기자

'나는 절로 낙산사' 4225명 지원 '역대 최다'

남성 165.5대1 · 여성 257대1
8월 중 수도권서 진행 예정

'나는 절로' 낙산사 편에 총 4225명이 지원하면서 역대 최다 신청자를 기록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남성 1665명·여성 2570명이 지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남녀 각 10명을 모집하는 이번 낙산사 편에는 남성 165.5대1·여성 25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 최성현)과 협업으로 양양 낙산사(주지 일념 스님)에서 열리는 '나는 절로, 낙산사'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낙산사 다래헌 카페에서 일대일 차담, 낙산해변에서의 커플요가, 조깅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데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도륜 스님은 "엄청난 성원과 열기를 보내준 참가자들에게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해 많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복지재단은 8월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나는 절로'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조계종 중신회, 제2회 골프대회 성료

6월 23일, 60팀 · 240명 참가
단체전 우승, 제11교구신도회



전국 불자들이 자선 골프대회를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자비 나눔도 실천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6월 23일 청주 세레니티CC에서 '제2회 중앙신도회장배 전국 불자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직할교구신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교구신도회와 신도단체 소속 불자 60개 팀, 24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 시작에 앞서 정원주 회장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전국의 불자들과 함께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자비 나눔에 동참해 주신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는 단체전 우승은 제11교구신도회(불국사)가, 준우승은 직할교구신도회가, 개인전 메달리스트는 박정기 불자(남·18교구 백양사), 이명희 불자(여·22교구 대흥사)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이날 마련된 자선기금은 직할교구신도회에 전달됐으며 향후 불자와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나눔 사업에 회향될 예정이다.

박지운 기자